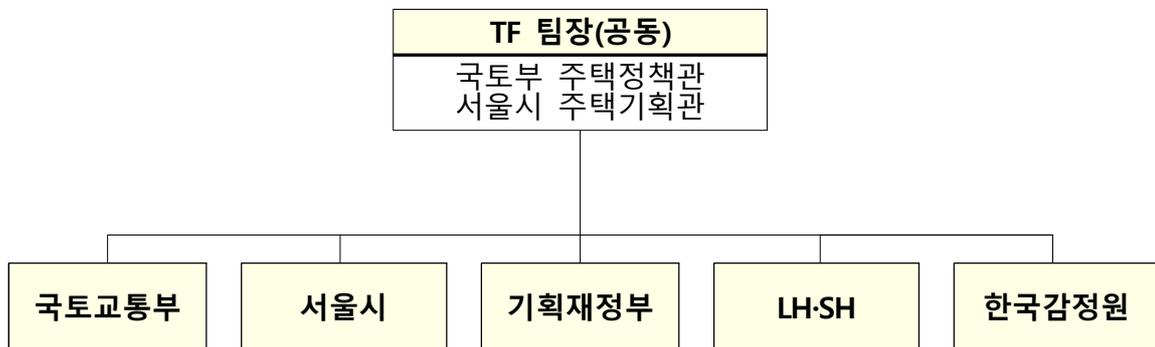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8. 10.(월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이재평, 서기관 김종성, 사무관 김태웅, 신용화 ☎ (044) 201-3384, 3387, 3385
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	담당자	·팀장 박진호, 사무관 이태운 ☎ (044) 215-2851
	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	담당자	·과장 진조평, 팀장 김용배, 주무관 김훈, 이기림 ☎ (02) 2133-7136, 7137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-서울시,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전담조직(TF) 발족 - 8.10일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 위한 1차 회의 개최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서울특별시(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(이하 공공재건축)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「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(TF)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, 기획재정부,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.

[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(TF) 구성도]



- TF는 조속히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8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으며,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.
 -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, 도시규제 완화,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 - LH·SH·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, 사업성 분석,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,
 -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.
-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 -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, 사업계획 수립 지원, 시공 품질관리,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에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,
 - LH·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,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 - 특히, 단지 설계,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“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,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”라며,
 - “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,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-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“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,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”이라며,
 - “절차 간소화,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  <p>공공누리 영문지속을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3387),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김용배 사무관(02-2133-71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